

중국인 L2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 실현을 중심으로—

김아름* · 김영주**

Abstract

Kim Arum, Kim Youngjoo. 2016. 12. 31. **Chinese Korean L2 learners' pragmatic competence development -Focusing on request and denial speech act-**. *Bilingual Research* 65, 1-29.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pragmatic competence of L2 Korean learners in the longitudinal frame. The study employed 20 students at the intermediate level who just arrived in Korea to continue their study. To conduct this study, 'leaving message on the answering machine' task was developed using computer program. and collected the verbal data of request speech act and denial speech act of the participants. Overall, the participants developed pragmatic competence as their study continued. The rate of increasement showed rapid for three month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but turned slow or went back at the end of study. In terms of speech act, while the development of request speech act continue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at of denial speech act took place at the beginning and became fossilized later. And the difference following to the proficiency revealed as the higher level group showed continued development till the end of the study comparing to the lower level group. The lower level group showed development and backsliding alternatively during the period of study.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 제2언어 발달(second language development), 학습 환경(learning contexts), 유학 환경(study abroad), 요청 화행(request speech act), 거절 화행(denial speech act), 종적 연구(longitudinal study), 한국어 숙달도(Korean language proficiency)

* 김아름: 제1저자

** 김영주: 교신저자

1. 서론

제2언어(L2) 습득은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학습 환경에 따라 L2 습득 양상이 달라짐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목표어 환경에서의 L2 실력 향상을 목표로 자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여 학업을 진행하는 학습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¹⁾ 이들이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의 한국어 수학을 결정한 데에는 주로 진학 및 취업의 목적과 함께 실제 한국어 사용 능력, 즉 구어 능력 향상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국내 거주 학습자들의 구어 능력 발달을 살펴본 연구(이석란 외, 2012; 김영주 외, 2013; 남주연, 2015; 이복자, 2016)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와 구어 능력 간에는 상관성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²⁾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구어 능력 발달은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구어 능력은 주로 ‘어휘나 문법과 관련된 통사적 지식을 구어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화용 능력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 즉, ‘어떠한 기능 전달을 목적으로 발화 상황이나 맥락에 적절한 언어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의가 없다.³⁾

-
- 1)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0년도에는 1,702명에 불과하였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 2010년에는 16,764명, 2015년에는 23,392명이 입국하였다.
 - 2) 선행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구어 능력도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 3) Bachman과 Palmer(1996)의 의사소통 능력 모델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은 크게 조직적 능력(organizational competence)과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으로 나뉠 수 있으며,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어떠한 기능 전달을 목적으로 발화 상황이나 맥락에 적절한 언어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고 일정 기간 구어 능력의 발달을 검토한 종적 연구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실험 연구나 유사 종적 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정 기간 실험 진행을 요구하는 종적 연구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구어 능력 발달을 논의할 때 이처럼 화용 영역이 배제된 제한된 시점에서 살펴본 것만으로는 학습자의 L2 발달의 역동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고는 국내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화용 능력 발달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용 능력 전반에 대한 발달을 살펴보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에 집중하고자 한다.⁴⁾ 이를 위해 별도의 수행 과제를 개발하고 과제를 통해 수집한 학습자의 구어 발화 자료를 분석하여 화행 실현 변화를 통해 화용 능력의 발달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연구 초기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화행 유형별 발달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겠다.

2. 선행연구

현재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의 화용 능력 연구에서는 중간언어 화용론의 틀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의 개별 화행에서 나타나는 화용적 전이 현상의 존재와 그 양상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발달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먼저 목표어 환경에서 L2 학습자들의 화용 능력 발달을 논의한 국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화용 능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4) 본 연구 진행 전에 서울 모 대학 부속 어학원에서 학습자와 교사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에서 중요한 화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관련 국외 선행연구에서도 주로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을 다루어 본고에서도 두 화행에 집중하였다.

목표어 환경에서의 화용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는 관례어(routines) 사용(Dufon, 1998; 2003), 언어사용역(register), 담화표지(terms of address), 화행(speech acts)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특정 맥락에서의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는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이다. Churchill & Dufon(2006; 12)에서는 학습자들의 화용 능력이 처음에는 상대방의 발화를 잘못 받아들이거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차츰 모어 화자처럼 의미를 확장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만, 결국 모어 화자와 같아지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개별 화행 수행 시 나타나는 발달 단계적 특징을 관찰하고 기술하거나(Scarcella, 1979; Takahashi & Beebe, 1987; Blum-Kulka & Olshtain, 1986), 화행 전략 사용에 있어서 모어 화자의 전략 사용과의 비교(Hill, 1997; Hassall, 1997)를 통해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Achiba(2003)에서는 17개월 동안 호주에 살고 있는 7세 일본 여아 아이를 관찰한 결과, 요청 화행을 수반하는 언어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정확해졌으며, 요청의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언어 형태를 사용함을 발견하였다.

Shively(2011)에서도 종적 연구 방법을 통해 미국인 스페인어 학습자 7명의 말 꺼내기(opening)와 요청하기 화행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자연 발화를 체류 시작, 중간, 끝으로 3번에 걸쳐 수집한 결과, 미국인 학습자들의 화행 수행은 스페인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양상으로 발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요청 화행에서는 화자 중심에서 청자 중심으로 단어(동사) 사용이 변화하는 등의 주목할 만한 결과도 나타났으나 모어 화자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화행 수행 전략에 대한 연구로 Hill(1997)에서는 일본의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청 화행의 내적 수식어구(internal modification)와 외적 수식어구(external modification)의 사용 양상, 그리고 전략 사용의 직접성

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영어 숙달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이들과 같은 나이의 영국의 대학생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영어 모어 화자의 기준에 근접해 가나 ‘암시하기(hints)’와 같은 전략은 숙달도가 높아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발달하지 못했음을 지목하였다. 이어서 Hassall(1997)에서는 호주인 인도네시아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을 역할극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거시적 전략은 모어 화자와 유사하게 사용하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미시적 전략들은 모어 화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각 화행별 발달 속도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Hoffman-Hicks(2000)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인사나 작별인사의 경우 칭찬 화행보다 발달 정도가 더 크다고 하였다. 반면, Rodriguez(2002)에서는 미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목표어 환경과 자국어 환경 집단으로 나누어 요청 화행 발달 양상을 살펴본 결과, 요청 화행의 경우 발달 속도나 양상에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요청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맥락이며 자국어 환경의 외국어 교실에서도 많은 연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arron(2003)에서는 33명의 독일어를 배우는 아일랜드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요청 화행의 발달 속도가 거절 화행 보다 더 빠름을 보고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의 화용 능력 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이선명(2009)이 유일하다. 이선명(2009)은 숙달도가 다른 세 집단을 대상으로 요청 화행 수행 시 나타나는 전략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화용 능력의 발달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요청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어 화자의 기준에 근접하는 발달 양상을 보였으나, 고급 단계의 학습자의 경우에도 모어 화자의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화용 능력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음을 보고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은 각 화

행의 정형적 표현(formulaic expressions)과 같은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비모어화자 같은 표현들을 점차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중간언어 체계를 강화해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들은 화용 능력이 모어 화자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그 과정이 반드시 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국어 환경보다 목표어 환경에서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을 언급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화용 능력 발달을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에 집중하여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 도구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시내 대학의 어학원 혹은 학부의 교환 학생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자국에서 한국어로 이동하여 최소 2학기(어학원 3학기) 이상⁵⁾의 학업 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공고를 통해 실험을 희망한 학습자들은 52명이었으나 본고가 구어 화용 능력 발달을 검토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초급 수준의 숙달도를 보인 24명의 학생을 제외하였다. 또한 10개월의 실험 과정 중에 8명의 학습자가 중도 포기를 하여 최종 20명의 학습자가 남게 되었다.

5) 공고를 통하여 2015년 가을 학기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모집하였다. 단 본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대학 기관의 어학원에서는 3개월(10주 수업 후 3주 방학) 단위로 한 학기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학원에 등록한 학습자들은 최소 3학기(9~10개월) 이상의 학습 계획을 가진 경우도 모집 대상에 포함되었다.

최종 실험까지 참여한 학습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진 20대로 여학생이 18명, 남학생이 2명이며, 평균 연령은 21.8세, 평균 학습 기간은 15.8개월이었다.⁶⁾

3.2. 연구 도구

3.2.1. 한국어 C-test

한국어 학습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학습을 시작할 당시의 숙달도를 알아보기 위해 Lee-Ellis(2009)가 개발한 한국어 C-test를 사용하였다.⁷⁾ 한국어 C-test는 숙달도 수준에 상관없이 두루 적용 가능한 시험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다.⁸⁾ 한국어 C-test의 수행 방법은 간단하다. 주어진 단락의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는 방식으로 전체 단락은 총 4개이며 한 단락당 25개의 문항(총 100문항, 빈 칸 188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 칸 하나당 배점은 1점으로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된다. 각 단락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일상생활, 두 번째 단락은 여행 계획, 세 번째 단락은 백화점 광고, 네 번째 단락은 교통 혼잡과 관련된 내용이다.

-
- 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험 시작 당시 이미 자국에서 평균 15.8개월의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었으며 국내에서의 일정 기간 체류를 통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환학생 집단이다.
 - 7) 본 연구가 학습자들의 일반 한국어 숙달도 측정 도구를 사용한 이유는 첫째, 한국어 교육에서 특정 화행에 필요한 숙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도구가 없으며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화용 능력 발달과 함께 일반 숙달도와 화용 능력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임에 있다.
 - 8) 한국어 C-test의 개발 과정과 검증 결과에 대한 논문은 Language Testing 26(2)에 수록되었으며, 논문 제목은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Korean C-test using Rasch analysis’이다.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뭐니뭐니해도 교통 문제가 제일 크다. 도로에 서는 교__ 체증으로 인__ 에너지와 시__ 낭비된다. 특히 출__ 시간에 한꺼__ 차량이 일제__ 몰려서 도__ 아주 북__ .

게다가 뉴욕 같은 대도__ 주차난은 매__ 심각한 수준__ . 자동__ 점점 많아__ 반면 주__ 공간은 제__ 있기 때__ 주차난이 생__ .

주차장이 부족하면 사람__ 주택가 끝__이나 도로에까지 주차를 하__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불__으로 주__ 차량은 또 다시 교통 혼__ 원인이 되__ 더 심__ 교통 체증을 일으킨다. 따라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가용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한국어 C-test의 예 - 네 번째 단락

3.2.2. 전화 메시지 녹음하기 과제

본 연구는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에서의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화 메시지 녹음하기’ 과제를 개발하였다. 해당 과제는 학습자들이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해 별다른 연습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내용에 집중하여 구어 산출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하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Yoshinori & Martines-Flor, 2008).⁹⁾

과제 유형을 선정한 후에는 화행 내 변인과 화행별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였다. Brown과 Levinson(1987)에서는 화행 내에서의 상황 변인으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D), 사회적 힘(Social Power: P), 부담의 정도(Absolute Ranking Imposition: R)¹⁰⁾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

9) 그간의 화행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DCT(담화 완성 테스트)를 사용해왔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반면 반응이 가상적이기 때문에 실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Kasper & Dahl, 1991; Hartford & Bardovi-Harlig, 1992; Golato, 2003; Yoshinori & Martines-Flor, 2008)을 받아왔다.

10)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D)는 친분 관계를 의미하며, 사회적 힘(Social power: P)은 위계관계를 의미한다.

회적 힘'만을 변인으로 두었다. 이는 '사회적 힘'의 경우 발화자인 '나'와 비교하여 나이 또는 사회적 지위의 높낮음에 대한 판별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위계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힘'에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발화자인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나이나 지위가 낮은 경우는 상하, 같은 경우에는 동등, 높은 경우에는 하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등 관계와 하상 관계만을 변인으로 두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 대부분이 대학교 1, 2학년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이나 자신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의사소통 할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화행별 세부 상황은 평소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청이나 거절 상황으로 구성하였다.¹¹⁾ 각 화행별 구체적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화용 능력 산출 과제의 화행별 상황

화행	위계 변인	실험 일정	상황
요청	하상	1	교수님께 보고서 제출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함.
		2	룸메이트 선배에게 자신의 과제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함.
		3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근무 시간을 바꿔 달라고 요청함.
		4	선배에게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요청함.
	동등	1	룸메이트에게 자신이 창문 쪽 침대를 쓸 것을 말함.
		2	친구에게 내일 학교에 일찍 가면 도서관 자리를 맡아 달라고 말함.
		3	친구에게 함께 쇼핑을 가자고 말함.
		4	친구의 노트북(카메라)을 빌려달라고 말함.

11) 각 화행 별 세부 상황을 결정하기 위해 12명의 한국인 대학생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소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직접 경험한 부탁이나 요청 또는 거절 상황에 대해서 열 가지 이상 적어 달라는 내용으로 특별한 형식 없이 개방형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평소 대학생활을 배경으로 구체적 상황을 제한한 이유는 학교생활이 모든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생활의 교집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언어 산출을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거절	하상	1	교수님의 프로젝트 제안을 거절함.
		2	선배의 동아리 가입을 거절함.
		3	아르바이트 시간을 연장하자는 사장님 제의를 거절함.
		4	카메라를 빌려달라는 교수님의 요청을 거절함.
	동등	1	함께 과제를 하자는 친구의 제의를 거절함.
		2	친구의 컴퓨터 구입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거절함.
		3	자신의 과제를 대신 제출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함.
		4	시험문제를 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함.

총 16개의 세부 상황은 모두 단락으로 재구성되었다. 단락에는 화행 내 변인에 대한 정보와 해당 화행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 및 상황 등이 암시적으로 제시되었다. 실제 실험에서는 한국어로 구성된 오디오 파일과 대본이 사용되었다. 대본은 학습자가 오디오 파일을 듣는 동안만 컴퓨터 화면에 제공되었다. 학습자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앞으로 수행할 과제의 유형과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이후 미리 녹음된 파일을 듣고 상황에 맞게 요청 및 거절의 메시지를 말로 전달한다.¹²⁾ 학습자들의 발화는 노트북 컴퓨터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MP3 파일로 자동 저장되었다. 녹음된 오디오 파일은 연이어 두 번 들려주며 녹음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Situation B.1

기숙사 방과 룸메이트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침대가 두 개 있습니다.
 당신은 창문과 가까운 쪽 침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룸메이트에게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그림 2> 화용 능력 산출 과제의 실제 화면

12) 접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부재중인 경우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이지만 실험의 효율성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전체 실험은 총 4회에(10주 간격)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회 4가지(요청 하상, 요청 동등, 거절 하상, 거절 동등) 상황에 대해 녹음이 진행되었다.

3.3. 자료 분석

3.3.1. 한국어 숙달도

한국어 C-test의 점수 산정은 Lee-Ellis(2009)에서 제시한 부분 점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¹³⁾ 부분 점수 부여 방식은 빈 칸마다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맞으면 1점을 부여하고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만점은 188점이다.

문항 예제:	학 _ _
정답 :	학 교 예
문법 사항:	어휘 + 조사

<그림 3> 한국어 C-test 점수 산정의 예

위와 같은 경우 한 문항이지만 두 개의 빈 칸이 존재한다. 부분 점수 부여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문항은 0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빈 칸을 모두 틀렸을 경우에는 0점, 둘 중 하나만 맞았을 경우에는 1점, 둘 다 맞았을 경우에는 2점이 부여된다.

13) Lee-Ellis(2009)에서는 ‘Partial Credit Model (PCM) scoring’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부분 점수 부여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3.2. 화용 능력의 측정

화용 능력은 전화 메시지 녹음하기 과제로 측정하였다. 해당 과제의 구어 산출 자료는 크게 전체 평가(holistic assessment)와 분석 평가(analytic assessment)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평가는 총 3인의 한국어 교사 평가자가 학습자의 구어 산출 자료를 듣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평가자는 모두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한 교사이며 이들의 평균 한국어교육 경력은 7년이다.¹⁴⁾ 실제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공손성(politeness), 직접성(directness), 존중성(deference)을 기준으로 삼되, 이를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경어법 및 격식체 등을 발화 맥락과 대화 상대에 맞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다만, 각 평가 기준에 대한 비중은 평가자 판단에 맡겼다. 실제 평가는 동일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여 진행되었다. 평가자는 음성 파일을 듣고 미리 논의된 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록표에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점수는 5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자간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화행 및 변인에 따라 0.721~0.894로 나타나 평가자 간 신뢰도가 높았다.¹⁵⁾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오디오 파일은 무작위로 제공되었으나 개별 화행별로는 구별을 두어 요청 화행에 대한 평가 후에 거절 화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실제 평가는 총 이틀에 걸쳐 아홉 시간이 소요되었다.

14) 3인의 평가자는 대학기관에서 말하기 평가, 한국어 숙달도 평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한 집단이다. 해당 시점까지 각 8년, 5년, 8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었다.

15)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은 서로 다른 평가자들이 같은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일한 판단을 하였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연구 결과 해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값으로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이어서 분석 평가의 관점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화행 수행과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화행 수행과의 비교를 위해서 한국어 학습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인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산출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어법 사용 양상 및 문장 유형, 담화표지 그리고 발화 시간을 비교하였다.¹⁶⁾

4.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을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 실현을 중심으로 10개월의 기간 동안 종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작 시점에 실험 참여자의 숙달도를 측정하였고 이어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 실현 녹음 자료를 전체 평가와 분석 평가 방식을 통해 평가하였다. 본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

4.1. 한국어 C-test 결과

한국어 C-test 결과를 토대로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집단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었다.¹⁷⁾ 전체 집단의 평균은 95.85점으로 약 51%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집단은 상위 집단,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집단은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상위 집단의 총점 평균은 120.9점, 하위 집단의 총점 평균은 70.8점으로 나타났다.

16) 경어법 사용 양상 및 문장 유형, 담화 표지 그리고 발화 시간은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 양상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요인들이다.

17) 한국어 C-test의 인지도가 낮아 TOPIK과의 비교를 통해 C-test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2016년 이후 TOPIK에 참여하여 3급 또는 4급을 획득한 학생 20명(3급 10명, 4급 1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C-test를 실시한 결과, 3급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82.2점으로 하위 집단의 평균과 비슷하였고 4급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30.8점으로 상위 집단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검정 t-test를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별 평균 측정 결과

	인원 (명)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확률
상위 집단	10	120.9	15.6	-5.916	.000 *
하위 집단	10	70.8	21.8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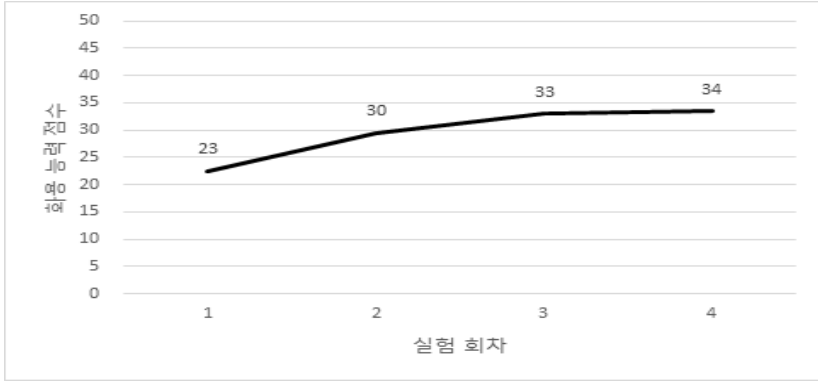
숙달도 상위 집단의 평균 한국어 학습 기간은 17.6개월, 하위 집단의 평균 한국어 학습 기간은 13.9개월이며, 각 집단의 평균 나이는 상위 집단이 22.1세, 하위 집단이 21.4세로 나타났다.

4.2. 화용 능력 평가 결과

4.2.1. 전체 평가

한국어 교사 평가로 진행되는 전체 평가에서는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에서의 전체적인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변인(사회적 힘)과 숙달도에 따른 집단별 발달 차이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SA 환경에서의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청 화행에서의 화용 능력은 향상된 반면, 거절 화행에서의 화용 능력은 초반에 발전을 보이다가 이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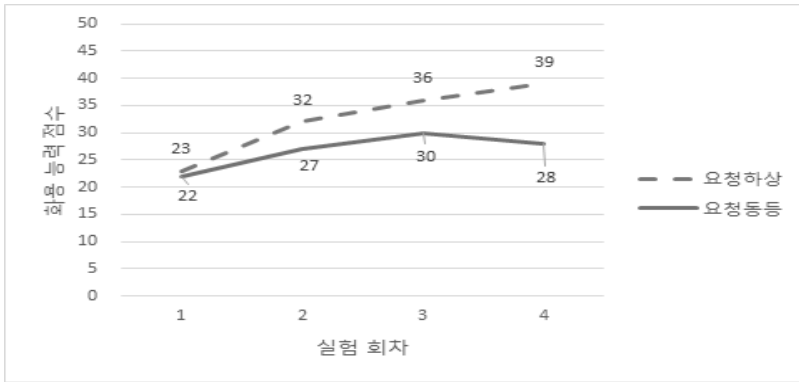
먼저, 요청 화행에서의 전체 집단의 화용 능력 발달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화용 능력 점수 - 요청 화행 전체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SA 환경에서의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청 화행에 있어서의 화용 능력은 꾸준한 향상을 보였으나 그 발달의 폭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용 능력은 학습 초기에 가장 많은 발전을 보였는데, 이 시기는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 환경이 가장 많이 변화한 시기이다. 자국에서의 언어 학습과 달리 한국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집중적인 언어 학습 환경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가장 많은 발전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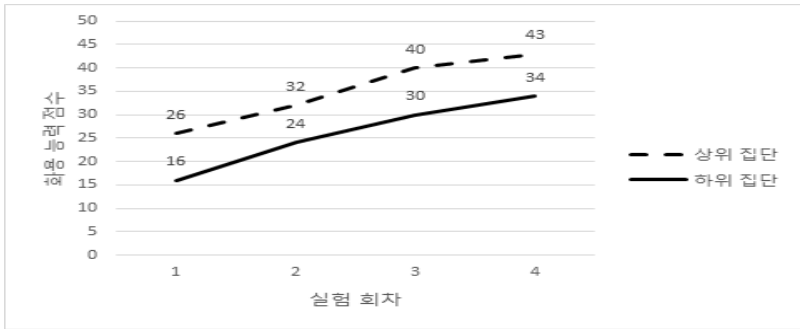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요청 화행 내 변인으로 사회적 힘을 설정하였는데 화자인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사회적 힘이 강하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하상’으로, 나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 ‘동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힘 변인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5> 화용 능력 점수 - 요청 화행 내 사회적 힘 변인

앞서 요청 화행 전체의 발달 양상에서 꾸준한 발달을 보였던 것과 달리, 사회적 힘 변인에 따른 발달 양상은 다소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하상 관계와 동등 관계 모두 처음 실험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요청 화행 수행 능력을 보였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마지막 실험에서는 동등 관계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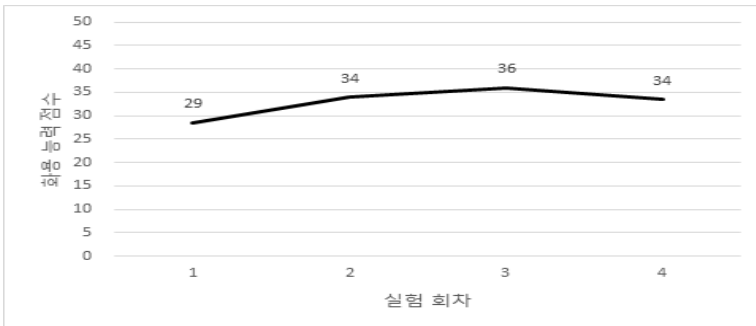
다음으로, 숙달도에 따른 발달 양상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숙달도별 화용 능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숙달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숙달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모두 꾸준한 발달 양상을 보였다. 첫 실험과 마지막 실험을 비교했을 때 두 집단 모두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숙달도에 따른 화용 능력의 차이는 마지막 실험까지 변화가 없었다. 숙달도에 따른 요청 화행 발달 양상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화용 능력 점수 - 숙달도별 요청 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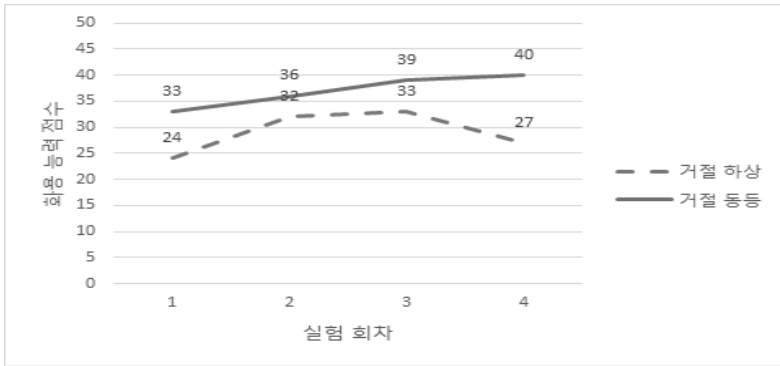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요청 화행에서의 화용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학습 후기로 갈수록 향상 폭은 줄어들었다. 학습자 숙달도에 따른 결과에서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모두 꾸준히 발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힘 변인에 의한 결과에서, 하상 관계에서의 요청은 지속적인 발달을 보인 반면, 동등 관계에서의 요청은 역행하는 현상을 보였다.

거절 화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절 화행에서는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 사이의 기간 동안 발전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7> 화용 능력 점수 - 거절 화행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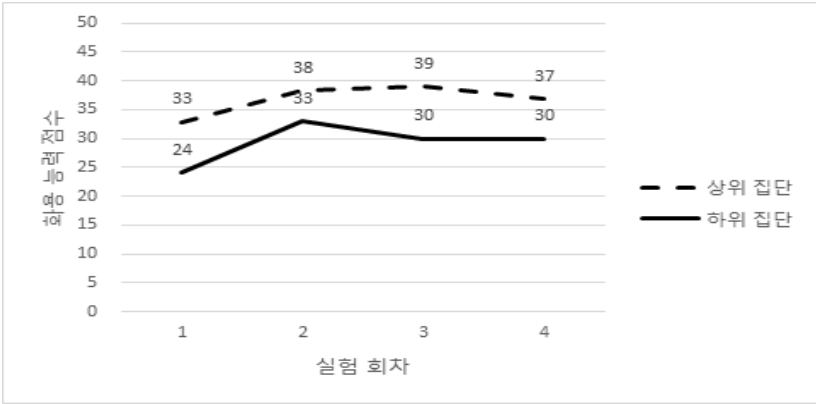
거절 화행 내 사회적 힘 변인에 따른 결과는 <그림 8>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8> 화용 능력 점수 - 거절 화행 내 사회적 힘

거절 화행 내에서 변인에 따른 발달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동등 관계에서의 거절 수행은 SA 학습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하상 관계에서의 거절 수행은 초반에는 발달을 보이다가 후반에는 오히려 역행하였다. 앞서 요청 화행에서의 발달 양상과 비교해 보면, 요청 화행에서는 동등 관계의 요청 수행에서 역행적 발달을 보였으나 거절 화행에서는 하상 관계의 거절 수행에서 역행적 발달이 나타났다.

다음은 숙달도에 따른 발달 양상이다. 숙달도 상위 집단의 경우 학습 초기에 발전을 보인 이후에는 실질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위 집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초반에 큰 향상을 보인 후에 오히려 다소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며 마지막 실험까지 특별한 발전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요청 화행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로, 이를 통해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은 개별 화행에 따른 수행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발달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화용 능력 점수 - 숙달도별 거절 화행

4.2.2. 분석 평가

본 절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산출 결과를 경어법, 문장 유형, 담화표지 및 발화 시간의 영역에서 화행별, 변인별로 분석 결과의 결과를 각각 살펴보겠다.

(1) 경어법

먼저 경어법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모어 화자와 닮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표 3>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경어법 사용 양상(단위: %)

			숙달도 상위 집단				모어 화자	숙달도 하위 집단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요청 화형	하상 관계	격식체 ¹⁸⁾	40	-	-	-	28	20	-	-	20
		비격식 존댓말	60	100	100	100	72	80	90	100	80
		비격식 반말	-	-	-	-		-	10	-	-
	동등 관계	격식체	-	-	-			-	-	-	-
		비격식 존댓말	60	20	-	20	6	80	60	-	20
		비격식 반말	40	80	100	80	94	20	40	100	80
거절 화형	하상 관계	격식체	60	-	-	20	38	20	-	-	-
		비격식 존댓말	40	100	100	80	59	80	100	100	70
		비격식 반말	-	-		-	1	-	-	-	30
	동등 관계	격식체	-	-	-	-	3	-	-	-	
		비격식 존댓말	-	20	-	10		70	-	70	60
		비격식 반말	100	80	100	90	97	30	100	30	40

숙달도 상위 집단에서의 결과를 보면, 요청 하상 관계에서 비격식체 존댓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어 화자의 요청 하상에서 비격식체 존댓말의 사용 비율이 72 %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위 집단 한국어 학습자들은 요청 하상 표현에 있어서 모어 화자와 비슷한 경어법 사용 양상을 보이나, 다양하게 활용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요청 동등 관계에서는 실험 2차부터 비격식체 반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결과 또한 모어 화자(94%)와 비교해 볼 때 점점 모어 화자의 화형 실현과 유사해지는 모습이다. 거절 화형 하상에서는 국내 학습 시작 시점(1차 실험)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존댓말의 사용이 함께 이루어졌으나 학습이 시작된 후에는 비격식체 존댓말을 주로 쓰는 경향을 보였다. 거절 동등에서도 동등 관계에 적절한 반말을 사용하였으나, 실험 2차와 4차에서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18) 격식체는 ‘합쇼체’, 비격식 존댓말은 ‘해요체’, 비격식 반말은 ‘해체’를 의미한다.

숙달도 하위 집단에서의 결과를 보면, 요청 화행에서는 상위 집단 및 모어 화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상 관계에서의 격식체와 비격식 존댓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등 관계에서도 점차 모어 화자와 비슷한 사용 양상으로 변화해갔다. 한편, 거절 화행 하상 관계에서는 점차 적절한 경어법 사용 양상을 보이다가 4차 실험에서 갑자기 반말 사용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어 교사 평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앞서 한국어 교사 평가 점수가 4차 실험에서 평가 점수가 다소 떨어졌는데, 해당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어법 사용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거절 화행의 동등 관계에서는 격식체 사용은 없었으나 비격식체의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웠다.

(2) 문장 유형

다음은 문장 유형 사용에 대한 비교 결과이다. 숙달도 상위 집단의 학습자들은 요청 화행에서 주로 평서문과 의문문을 사용하였으며, 거절 화행에서는 전체적으로 평서문의 사용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어 화자의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숙달도 하위 집단에서는 청유문의 사용이 관찰되었다. 실험 2차 요청 화행과 3차 거절 화행에서 청유문을 사용하였으며 그 비율 또한 낮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에 학습자들이 청유문을 학습하여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4>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문장 유형 사용 양상 (단위: %)

			숙달도 상위 집단				모어 화자	숙달도 하위 집단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요청 화형	하상관계	평서	20	30	40	60	34	20	20	40	60
		의문	80	70	60	40	66	80	80	60	40
		명령	-	-	-	-		-	-	-	-
		청유	-	-	-	-		-	-	-	-
	동등관계	평서	20	20	20	20	9	40	20	-	40
		의문	80	60	60	80	76	60	80	70	60
		명령	-	20	20	-	9	-	-		-
		청유	-	-	-	-	6	-	-	30	-
거절 화형	하상관계	평서	100	100	100	90	94	100	100	100	100
		의문	-	-	-	10	6	-	-	-	-
		명령	-	-	-	-		-	-	-	-
		청유	-	-	-	-		-	-	-	-
	동등관계	평서	80	80	20	100	72	100	60	60	100
		의문	20	20	80	-	16	-	10	40	-
		명령	-	-	-	-	3	-	-	-	-
		청유	-	-	-	-	9	-	30	-	-

(3) 담화표지

담화표지 결과에서는 집단별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¹⁹⁾ 먼저, 요청 화형을 보면 숙달도 상위 집단에서는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로 사용하는 표현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해당 표현이 모어 화자와 닮

19)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표지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해영(1994), 전영옥(2002)에서는 담화의 일관성에 주목하였으며 김향화(2001)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담화전략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이 담화표지의 정의 혹은 유형 분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화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담화표지를 탐색하는 것에 있으므로 본고의 목적에 맞게 담화표지를 '발화 상황에서 특정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나타나는 표현'으로 보고 형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어휘적 차원과 통사적 차원으로만 구분하고자 한다. 어휘적 차원의 담화표지는 '어휘 표현'으로 통사적 차원의 담화표지는 '통사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표 5>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표지 사용 - 요청 화행

		숙달도 상위 집단		숙달도 하위 집단	
		하상 관계	동등 관계	하상 관계	동등 관계
요청 화행	1차	-(으)면 안 되다 -(으)면 좋겠다 -(으)르 수 있다 가능하다 부탁하다	-하고 싶다 -(으)면 되다 -(으)르 수 있다 좋아하다	-(으)면 되다 -(으)르 수 있다 부탁하다 괜찮다	-하고 싶다 -(으)면 되다 -(으)르 수 있다 괜찮다
	2차	-(으)면 되다 -(으)면 좋겠다 -(으)르 수 있다 -아/어 주다	-(으)면 되다 -(으)면 어떻다 -(으)르 수 있다	-(으)르 수 있다 -아/어도 되다 부탁하다	-아/어 주다 -(으)르 수 있다 부탁하다 도와주다
	3차	-(으)면 안 되다 -아/어도 되다 -(으)르 수 있다	-(으)면 안 되다 -(으)르 수 있다 도와주다	-고 싶다 -(으)르 수 있다 -(으)면 되다 -(으)면 안 되다	-(으)르 수 있다 같이 + V 도와주다
	4차	-(으)르 수 있다 부탁하다	-(으)르 수 있다 -아/어도 되다	-(으)르 수 있다 -(으)면 안 되다	-아/어 주다 -아/어도 되다 -(으)르 수 있다 -(으)면 안 되다

1차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담화표지를 통해 요청을 수행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4차 실험에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을 수 있다’, ‘-아도 되다’의 통사적 표현이나 ‘부탁하다’의 어휘 표현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시작 시점에서 학습자들이 각자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청 화행을 수행하였다면, 목표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점점 모어 화자의 발화 양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숙달도 하위 집단은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휘 표현보다 통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상위 집단에 비해서는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거절 화행의 결과이다. 숙달도 상위 집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 담화표지만이 사용되었는데, 시작 시점에서부터 4차 실험에 이르기 까지 사용한 담화표지의 다양성이나 형태에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시작 시점에서는 ‘못+ V’의 형태로 다소 직접적인 거절을 하였으나 4차 실험에서는 직접적인 거절 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숙달도 하위 집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양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표 6>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표지 사용 - 거절 화행

		숙달도 상위 집단		숙달도 하위 집단	
		하상 관계	동등 관계	하상 관계	동등 관계
거절 화행	1차	못 + V -(으)ㄹ 것 같다 죄송하다	-(으)ㄹ 것 같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으)ㄹ 것 같다 미안하다
	2차	못 + V -(으)ㄹ 수 없다 -(으)ㄹ 것 같다	못 + V -(으)ㄹ 수 없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시간이 없다	못 + V 미안하다 시간이 없다
	3차	-(으)ㄹ 수 없다 -(으)ㄹ 것 같다	-(으)ㄹ 수 없다 -(으)ㄹ 것 같다 어렵다	-(으)ㄹ 것 같다 -(으)ㄹ 수 없다 죄송하다	-(으)ㄹ 수 없다 -(으)ㄹ 것 같다 -고 싶지 않다 곤란하다
	4차	-(으)ㄹ 것 같다 어렵다	-(으)ㄹ 수 없다 -(으)ㄹ 것 같다	-(으)ㄹ 것 같다 -(으)ㄹ 수 없다 죄송하다	못 + V -(으)ㄹ 것 같다 미안하다

(4) 발화 시간

마지막으로 발화 시간을 살펴보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 시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먼저 한국어 학습자 집단 내에서는 변인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하상 관계에서의 발화 시간이 동등 관계보다 약 7~10초 정도 더 길었다. 또한 모어 화자와 학습자 집단 간에는 거의 2~2.5배에 이르는 발화 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어 화자에게는 거의 없는 머뭇거림, 자기 수정 및 휴지 등이 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7>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발화 시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평균	
요청 화행	상위 집단	하상 관계	58초	50초	53초	47초	52초	
		동등 관계	51초	40초	40초	38초	42초	
	하위 집단	하상 관계	54초	38초	41초	38초	43초	
		동등 관계	40초	38초	32초	30초	35초	
	모어화 자	하상 관계	18초					
		동등 관계	15초					
거절 화행	상위 집단	하상 관계	51초	49초	50초	37초	47초	
		동등 관계	31초	43초	37초	39초	38초	
	하위 집단	하상 관계	45초	36초	40초	33초	39초	
		동등 관계	34초	27초	30초	35초	32초	
	모어 화자	하상 관계	16초					
		동등 관계	14초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자들의 화용 능력이 모어 화자와 근접해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경어법, 문장 유형, 담화표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어 화자의 화행 실현을 닮아가는 양상을 보였으나 발화 시간 및 속도, 즉 유창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모어 화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거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에 집중하여 목표어 환경에서의 화용 능력 발달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화 메시지 녹음하기’ 과제를 개발하여 화행 실현 발화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숙달도 및 화행 내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목표어 환경에서의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자들의 화용 능력도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험이 거듭될수록 발달의 폭은 줄어들었다. 학습자들은 시작 시점에서부터 3개월 동안 가장 큰 발달 정도를 보였는데, 이 시기에 한국인 모어 화자의 실제 발화를 가장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발달의 폭이 줄거나 오히려 퇴행을 보이기도 하였다.

화행별로는 요청 화행에서는 시작 시점부터 실험이 끝나는 시점까지 10개월 동안 꾸준히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절 화행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숙달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숙달도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에 비해 발달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이 끝날 때까지 꾸준한 발달을 보였다. 반면 숙달도 하위 집단은 학습 기간 동안 발달과 퇴행을 반복하였다. 이는 이정란(2011)에서 학습자의 숙달도(문법 능력)가 화용 능력 발달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한 주장과 같은 맥락이며 나아가, Taylor(1975)에서 특정 화행 수행에 있어 숙달도 상위 집단의 학습자들이 하위 집단의 학습자들보다 모어 전이에 의한 영향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화용 능력 발달에 있어 더 유리하다고 한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화행 내 변인에 따라서는, 화행별, 변인별로 모두 다른 다소 복잡한 결과가 나타났다. 요청의 하상 관계와 거절의 동등 관계에서는 꾸준한 발달을 보였으나, 요청의 동등 관계와 거절의 하상 관계에서는 6개월 시점에서 발달이 멈추고 마지막 실험에서는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청 화행의 동등 관계에서는 담화표지 사용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거절 화행의 하상 관계에서는 부적절한 경어법 사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교육에서 개별 화행의 화용 능력 신장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표어 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적인 언어 노출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화용 능력 발달을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언어 입력 및 사용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마련되어야 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발달이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종적 관찰을 통해 국내 거주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을 면밀히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참여자 수와 그 구성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향후 화용 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구어 능력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도 여러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행되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종적 발달을 통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반영한 언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학습자 변인과 학습 시기에 따라 적절한 학습 목표를 선택하도록 도울 것이며 나아가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방안 마련을 위한 기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영주, 남주연, 이선진, 이선희. (2013). 한국어 숙달도와 산출 능력 간의 상관관계 연구.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209-244.
- 김향화. (2001).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소, 113-140
- 남주연. (2015).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복잡성 연구: 통사 및 어휘 복잡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복자. (2016).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와 말하기에 나타난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의 역동적 발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석란, 탄 티 튀 히엔, 권미경. (2012). 베트남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와 한국 가정 아동의 이야기 만들기에 나타난 통사적 숙달도 비교 연구- 9세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5-245.
- 이선명. (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 연구: 요청 화행 실현 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1994). 담화표지 ‘글쎄’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논집> 13, 이화

- 어문학회, 129-150.
- 전영옥. (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113-145.
- Achiba, M. (2003). *Learning to request in a second language : A study of child interlanguage pragmatic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designing and developing useful language t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rron, A. (2003). *Acquisition in Interlanguage Pragmatics. Learning How to do Things with Words in a Study Abroad Context*. Amsterdam: John Benjamins.
- Blum-Kulka, S. & Olshtain, E. (1986). Too many words: Length of utterance and pragmatic failur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8(2), 165-179.
- Brown, P. & S. C. Levinson. (1987).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urchill, E., & Dufon, M. A. (2006) *Language Learners in Study Abroad Context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5.
- DuFon, M.A. (1998). Learning the language and culture of Indonesia: A diary study of the acquisition of the tea routine in Javanese Indone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Language Teaching*, 7, 60-96.
- DuFon, M.A (2003). Gift giving in Indonesian: A model for teaching pragmatic routines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with the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 In A. Martinez Flor, E. Uso Juan and A. Fernandez Guerra (Eds.), *Pragmatic Competence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pp.109-131), Castellon: Serei de Publicacaions de la Universitat Jaume I .
- Golato, A. (2003). Studying compliment responses: A comparison of DCTs and recordings of naturally occurring talk. *Applied Linguistics* 23, 90-121.
- Hartford, B. A. S., & Bardovi-Harlig, K. (1992). Experimental and observational data in the study of interlanguage pragmatics. In L. Bouton (Ed.), *Pragmatics and Language Learning*, vol. 3 (pp. 33-52). Urbana, IL: Division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ntensive English Institut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Hassall, T. J. (1997). *Request by Australian learners of Indonesian*. Ph. 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Hill, T. (1997). *The development of pragmatics competence in an EFL context*. Ph. 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Hoffman-Hicks, S. D. (2000). *The longitudinal development of French foreign language pragmatic competence: Evidence from study abroad*.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A, 61(2),

591.

- Kasper, G., & Dahl, M. (1991). Research methods in inter-language pragmatic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2), 215-247.
- Lee-Ellis, S. (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Korean C-test using Rasch analysis, *Language Testing*, 26(2), 245-274.
- Rodriguez, S. (2001). *The perception of request in Spanish by instructed learners of Spanish in the second - and foreign - language contexts: A longitudinal study of acquisition pattern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Scarcella, R. (1979). On Speaking politely in a second language. In C. A. Yorio, K. Perkins & J. Schachter (Eds.), *On TESOL'79* (pp. 275-287), Washington, DC: TESOL.
- Shively, R. L. (2011). L2 pragmatic development in study abroad: A longitudinal study of Spanish service encounters. *Journal of Pragmatics* 43, 1818-1835.
- Takahashi, T., & Beebe, L. (1987). The development of pragmatic competence by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JALT Journal*, 8, 131-155.
- Yoshinari L. F., & Martinez-flor, A. (2008) The Interactive Effects of Pragmatic-Eliciting Tasks and Pragmatic Instruction. *Foreign Language Annals*, 41(3), 478-500.

김아름(Kim Arum)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전화번호: 031-201-2238

전자우편: aj070803@naver.com

김영주(Kim Youngjoo)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전화번호: 031-201-2284

전자우편: yjkims@khu.ac.kr

접수일자: 2016년 10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11월 20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5일